



연변,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한다

지난해 인삼산업 총생산액 115.6 억원, 동기 대비 13% 증가

지리표지 증명 상표 인삼제품 104 개, 전 성 총수의 50% 이상

‘신선초’는 심산을 벗어나 멀리로 나가고 수림 속에는 도처에 ‘황금’이 널려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면적이 11.6 만무에 달하는 림하산삼 재배기지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또 1,920 무의 면적에 림하산삼을 더 파종했다. 길림 연길국제공항공경제개발구에 전국에서 유일한 ‘국제인삼브랜드중심’이 정식 정착하면서 연변 인삼 브랜드의 국제화 발걸음을 힘있게 추진했다. 전 연변적으로 ‘장백산인삼’ 지리표지 증명 상표 사용 권한을 수여받은 인삼 제품은 80 개에서 104 개로 증가해 전 성 총수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백초의 왕’이 기동산업을 떠받치며 군중들 치부의 길을 열었다. 근년 들어 연변에서는 인삼산업을 적극 발전시켰는데 제 1 차 산업의 ‘기 본판’을 안정시키고 제 2 차 산업의 ‘새 지점 (支點)’을 구축하며 제 3 차 산업의 ‘새 엔진’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지 점 지원, 다업종 병진, 다원화 발전의 새 구도를 구축하였다.

화통시 투도진 대양구에 위치한 대양삼업림하삼재배기지에서는 3 열짜리 인삼, 4 열짜리 인삼 지어 년한이 더 오래된 인삼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규모화 림하삼 재배는 연변 인삼 산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오도록 했다.

대양삼업의 전신은 지난 세기 50 년대말의 국유인삼장으로서 연변에서 가장 일찍 림하중약재 생산에 종사한 기업인바 림하산삼 규모화 생산의 첫 물고기를 띄웠다. 중국농업과학원 특산연구소, 연변대학 농학원 등 과학연구기구 및 학교와 협력해 기지

의 재배기술, 제품 연구 개발에 힘입는 보장을 제공했다.

좋은 종자가 있어야 ‘진짜 순수한’ 좋은 인삼을 재배해낼 수 있다. 연변은 인삼산업 발전에서 시종 인삼 재배와 종자의 보호를 함께 추진했다.

인삼재배업의 안정한 발전을 추동했다. 전 주의 인삼재배호는 현재 2,200 여집으로 발전했으며 2023 년 전 주 비림지 인삼 보존 면적은 4.7 만무로 생산 2,227 만근을 수확했으며 그 생산액은 10.5 억원으로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종자의 품질 자원 보호 개발을 강화했다. 인삼 새 품종 ‘연삼 1 호’ 재배기지 540 무, 우량종 번식기지 260 무를 건설하고 ‘연풍 1 호’ 품종 확대 번식기지 115 무를 건설했다. ‘연삼 2 호’, ‘연풍 2 호’ 새 품종 과학연구 난관들과 그리고 시험 선종과 품종 신고 사업을 질서있게 추진했다.

고품질의 시험기지를 다그쳐 건설했다. 2023 년말까지 전 주적으로 장백산인삼 원재료기지가 54 개에서 60 개로 증가했으며 비림지 인삼 재배 표준화기지는 22 개에 달했다.

연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삼썰, 홍삼편, 홍삼액에서부터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또 여러가지 인삼약품과 보건제품에 이르기까지 인삼제품의 품종은 식품, 화장품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인삼제품 품종은 300 여종에 달한다. 아제날 ‘천초 (千草)’의 정령이요, 백약의 으뜸’이라 불리던 인삼은 오늘날 보통 백성을 집집마다에 들어갔다.

2023 년 길림한정 (韓正) 인삼유한 회사는 은진원 (恩珍源) 표 홍삼구부

액 보건식품 생산 허가를 받고 생산액 400 만원을 증가했다. 연변커시안생물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의 삼원 (森源) 표 홍삼 엑스트랙트 (浸膏) 생산액이 재차 새 기록을 돌파했으며 연간 생산액은 2.95 억원에 달했다. 길림화강 (華康) 약업주식유한회사의 혈전심맥녕 (血栓心脉宁) 은 전 주에서 유일하게 생산액이 억원을 넘는 약품류 제품으로 되었으며 연간 생산액은 2.37 억원에 달했다. 현재 연구개발중에 있는 국가 1 류 신약 위조인삼뉴클레오티드 (伪人參皂苷) GQ 주사액은 이미 II 기 림상시험 단계에 들어갔는데 생산에 투입되면 연간 생산액이 2 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삼제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됨과 동시에 연변의 인삼 경영주체도 부단히 발전 장대해졌고 수량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2023 년말까지 전 주 인삼 관련 주체가 2,500 여호에 달해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인삼 생산 가공 기업 연간 실제 가공량은 2,500 톤, 가공 능력은 만톤 이상, 생산액은 68.1 억원으로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연변봉정 (鵬程) 인삼거래시장이 건설되어 영업을 시작하면서 연변에 전문화 인삼거래시장이 없던 공백을 메웠다. 현재 20 여개 기업이 시장에 입주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길림연변인삼관 경동자영기합점 (旗舰店)’이 온라인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70 여가지 제품이 경동의 8 대 창고에 로 발송되고 있는데 하루 매출액이 2 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8 억원을 투자한 장백산순수약재재가공및중약재거래중심 건설이 이미 착공되었는바

완공되면 동북 아나가 전국 최대의 북약거래중심으로 될 것이다.

연변의 인삼 발전의 길은 ‘심산’에서 ‘고산’을 향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인삼산업의 실력과 협력비전을 적극 외부에 보여주고저 연변에서는 관련 기업을 조직해 동북아박람회, 농업박람회 등 근 10 곳의 여러가지 유형의 경제무역 상담 활동에 참가했다. 인삼산업 내생동력을 발굴하는데 힘쓰면서 연변에서는 여러가지 유형의 상업무역 활동을 진행하여 연변인삼의 지명도와 영향력, 시장 점유율을 제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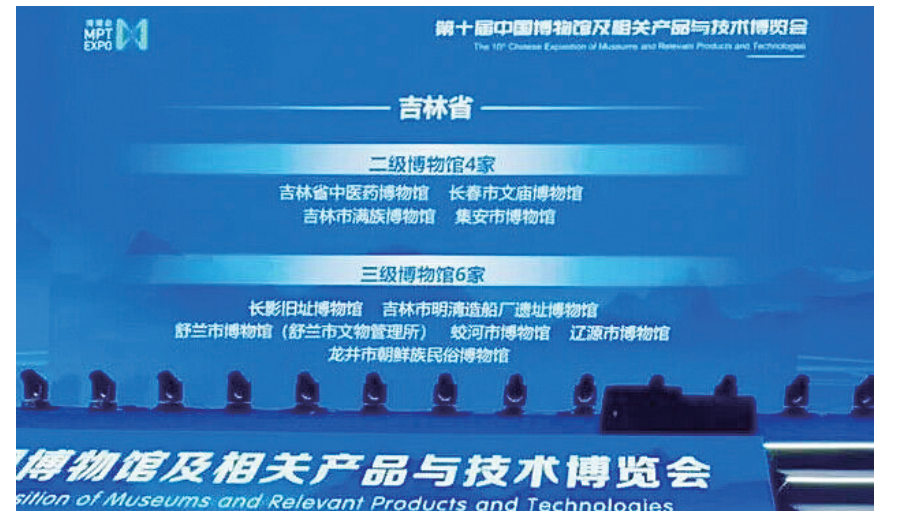
이와 동시에 연변은 브랜드 건설 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산업 표준화 체계를 점차 보완했으며 인삼시장 질서에 대한 정돈을 강화했다. 또한 국가삼용 (參茸) 제품 품질검사검측중심직능 역할을 강화했으며 인삼산업의 새로운 원동력을 전력으로 확고하고 신질생산력 육성과 발전을 다그쳤다.

“2023 년 전 주 인삼산업 총생산액은 115.6 억원으로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주인삼산업프로젝트전담반 판공실 주임 진서화에 따르면 다음 단계에 연변은 규모화, 표준화 재배를 실시하고 선두기업 육성을 강화하며 고품질 인삼 전문 거래 플랫폼을 건설하게 된다. 또한 마케팅 모식을 혁신하고 브랜드로 인삼을 강대하게 하는 전략을 실시하여 인삼산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재배 규모화, 가공 세밀화, 품질 표준화, 제품 브랜드화, 산업 집약화로 연변의 인삼산업 시장의 잠재력은 한창 빠르게 방출되고 있다.

/ 길림일보

제 5 진 전국박물관 등급 평가에서 길림성 10 개 박물관 입선



8 월 23 일, 내몽골 후호트시에서 열린 제 10 회 박물관 및 관련 제품과 기술박람회 개막식에서 중국박물관협회 비서장 리금광은 제 5 진 전국박물관 등급 평가 2 급, 3 급 박물관 명단을 발표하였다.

료해에 따르면 2023 년 12 월, 국가문물국은 중국박물관협회를 지도하여 제 5 진 전국박물관 등급 평가 사업을 가동하였다.

〈박물관등급평가방법〉에 따라 중국박물관협회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1,148 개의 신청단위중 국가 1 급 박물관 123 개, 국가 2 급 박물관 321 개,

국가 3 급 박물관 240 개를 선출하였다. 그중 국가 1 급 박물관의 평가 결과는 5 월 18 일에 정식 공포되었다.

이번 등급 평가에서 길림성의 10 개 박물관이 입선되었는데 길림성중의약박물관, 장춘시문물박물관, 길림시만족박물관, 집안시박물관이 국가 2 급 박물관으로 평의되고 장춘영화촬영소 옛터박물관, 길림시명청조선소유적박물관, 서란시박물관 (서란시문물관리소), 교하시박물관, 료원시박물관, 룡정시조선족민속박물관이 국가 3 급 박물관으로 평의되었다.

/ 길림일보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와 주문화라지호텔레비존방송관광국에서 주최한 민예·민속·민풍 전 주 우수민간문화단체 기층혜민공연 활동은 기층 문화를 번영시키고 군중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다.

8 월 18 일, 연변진달래송예술단에서 앞심들이 준비한 10 여개의 정채로운 공연 종목들은 룡정 비암산풍경구를 찾은 관광객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 길림일보

우리 나라 첫 〈직함평의심사감독관리방법〉발표

직함평의심사 절차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규정 위반 행위를 타격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직함평의심사감독관리방법〉을 발표했다. 료해한 바에 의하면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출범한 첫부의 직함평의심사감독관리 문서로서 직함평의심사 품질을 높이고 공평과 공정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문기술인원관리사 관련 책임자는 이 문건을 출범한 것은 직함제도 개혁 심화 배치 요구를 관철 실천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네가지 유일 타파’, ‘새 표준 세우기’ 권한 이양과 완화 등에서 적극적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직함평의심사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하여 이양후 관리하지 않고 이양후 혼란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함평의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두드러지고 쉽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 규정 위반 문제에 대해 방법은 신청자, 평의심사전문가, 직함평의심사 관련 일꾼 등 3 가지 중점군체와 평의심사단위, 신청자 소재단위 등 2 가지 중점단위에 초점을 맞춰 무작위 추출 검사, 정기적 순찰, 중점감독조사, 품질평가, 전문정돈 등 여러가지 방식을 취해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정부감독

관리, 단위 (업체) 자률, 사회감독의 직함평의심사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확히 했다.

방법은 개인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용관리를 실행하고 직함평의심사자의 신용불량 행위를 직함평의심사 신청 혹은 직함평의심사 사업에 참여하는 중요한 참고로 삼아 엄중한 신용불량 행위를 직함평의심사 신청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불량 징계를 내린다고 제기했다. 단위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알람, 약정상담, 평의심사 일시 중단, 정돈명령, 통보비평, 직함평의심사관련 회수 등 처리 조치를 취해 평의심사단위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를 강화한다.

방법은 관련 업계, 협회, 학회 등 사회화 평의심사기구를 감독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직함평의심사와 무관한 중개 등 기타 사회기구가 직함평의심사 명의를 차용하여 전개하는 불법 규정 위반 활동에 대해 방법은 이를 각지 직함평의심사환경 전문정돈의 중점 내용으로 삼아 지방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이 공안, 시장감독관리, 인터넷정보화 등 부문과 함께 배에 따라 처벌처리하도록 요구했다.

/ 인민넷

좋은 사람들을 찬양하고 본보기들에 경의를 표하다

— 2024 년 1, 2 분기 ‘길림 좋은 사람’ 발표 활동 연변대학서



좋은 사람들의 정신을 전파하고 시대적 힘을 고양하고자 8 월 22 일, 1, 2 분기 ‘길림 좋은 사람’ 발표 활동이 연변대학에서 거행했다.

활동 현장에서 성당위 선전부는 2024 년 1 분기, 2 분기 ‘길림 좋은 사람’ 선진사례들을 발표하고 왕외 등 20 명에 ‘길림 좋은 사람’ 기준병, 왕자형 (王梓衡) 등 66 명 (2 개 단체 포함) 에 ‘길림 좋은 사람’ 칭호를 수여했다. 활동 주최측은 표창받은 ‘길림 좋은 사람’들이 솔선수범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여 자각적으로 문명도덕 기풍의 실천자, 창조자, 인솔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전 성 각 지역, 각 부문에서 ‘길림 좋은 사람’을 본보기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대의 새 기풍을 끊임없이 고양하며 중화의 미덕을 전승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새 길림을 건설하는데 무궁무진한 정신적 원동력을 제공할 것을 호소했다.

경찰업종에 종사한 지난 12 년간 대중들의 사소한 일에도 신경 쓰고 도움을 준 길림출입경변경검사총역 연변변경관리지대 화룡대대 고성리 변경파출소 경찰 위호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장렬하게 희생한 연변대학 2021 급 학생 리걸, 성실경역을 견지해 신용으로 명성을 쟁취하고 발전사 이어온 돈화시장유식품유통회사 리사장 진장유, 43 년 동안 가족들을 떠나지 않고 알뜰살뜰 돌보면서 사심없는 사랑으로 빈곤가정을 이

끌어온 쌍료시 와호진 동방홍촌 촌민 류보근, 친민 애민 위민 정신을 계승하고 시종 민의를 선투로 하여 전심 전력으로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해온 장춘시공안국 이도분국 동성로파출소... 이날 발표한 모든 ‘길림 좋은 사람’들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창조하고 집념과 헌신 속에서 진실함, 선량함, 아름다움과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했으며 소박하고 꾸밈없는 실제 행동으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보여주어 무한한 에너지와 감동을 안겨주었다.

2024 년 1 분기 ‘길림 좋은 사람’ 기준병으로 선정된 장춘시 룡원자원봉사자연합회 회장 가금국은 다년간 공산당원으로서 성심성의껏 타인을

방조하고 개인적으로 10 여년간 공익 자원행동을 견지해왔으며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봉사와 자원봉사행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수상 소감에서 가금국은 “우리의 생활에서 사람마다 ‘좋은 사람’으로 될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선의를 가지고 모두가 작은 사랑과 배려를 베푼다면 사회문명의 진보를 이끄는 역량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새시대의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결은 통화사범학원 교육과학원 전직교사이며 길림성무형문화유산장백산 만족전지 대표적 전승인이다. 근 30 년 동안 예술활동에 종사해오며 장결은 교묘한 손재간으로 중국풍이 넘치는 예술작품들을 외국인들에게 선보였고 국제무대에서 중화 전통문화를 전파했다. 이번에 장결은 2024 년 2 분기 ‘길림 좋은 사람’ 기준병 칭호를 수여받았다.

소개에 따르면 근년대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는 주제 실천활동이 전 성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문명 건설이 끊임없이 새로운 진척과 새로운 성과를 취득했다.

이날 활동 현장에서는 또 길림성의 소년 정호와 안미연이 2024 년 전국 ‘새시대 좋은 소년’에 선정되었다.

/ 글 사진 리전기자